

전지적 하나님 시점 - 하나님의 마음으로 Change 하라!

누가복음 15장 31-32절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 .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무에서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 일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거할 수 있다는 것이 두렵기 조차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주저함 없이 ‘**함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은 아들의 타락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함이요,

큰 아들의 분노 역시 아버지와 ‘함께’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은 아들이 탕진한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아들의 것입니다. 큰 아들 역시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종교적 의무’에서 벗어 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두 아들의 관심은 돈과 쾌락, 명예와 보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라고 정의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물론 유명한 작품이지만 헨리 나우웬이 이 그림을 소재로 책을 쓴 후에 크리스천들의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죠. 렘브란트는 말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초라한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에서 탕자를 보았고, 그런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 아버지의 시선: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그만 짓물러 멀어버린 된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노인은 눈이 멀기 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 아버지의 손: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은 서로 다툽니다. 왼쪽 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 손이고 오른쪽은 매끈한 여자의 손입니다. 두 손을 통해 아버

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화해와 용서, 치유가 함께 담겨있습니다.

- * 작은 아들의 모습: 샌들이 벗겨진 원발은 상처투성이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부분적으로 겨우 감싸고 있어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잊은 자의 모습입니다. 죄수와도 같이 삭발한 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나타냅니다. 그 아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하나님의 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명이 나온다!

우리들의 문제는 종교적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종교적으로 ‘보이는 법’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궁색한 대답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던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목회 상담’에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가져오고 하나님

의 이름을 빌려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단지 인용하고 사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즉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가르치신 하늘나라의 복음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
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었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 아닐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주 래디컬 해 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 달라는 제자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정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
지가 보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 삶, 혹은 래디컬 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받으면, 삶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안정된 삶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래디컬 하다고 정의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섬겼던 고린도 교회에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사도바울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바울의 입장은 크리스천들이 현재의 자리를 지켜야 한
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외적 환경이 바뀐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바울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래디컬 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으로 래디컬 한 삶은 보이는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
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래디컬한 변화는 드러나는 종교인들의 외침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통해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동안 생각했던 ‘사명’이란,

아주 특별한 곳으로 가거나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려 삶을 바꾸는 것이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명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종교적 의무에서 사명을 꿈꾸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두 아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로 알려진 니콜라스는 중세 수도원 주방에서 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게 위대하거나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우리는 위대한 사명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로렌스 형제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고민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기 위한 규칙을 배우고 도구를 만들어 낸다. 네겐 정말 고달픈 세상처럼 보인다. . . 하지만 아주 간단할 수도 있다. 그냥 일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가?”

너무 현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피곤하거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쉼 없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염없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그 이상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11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렌스 형제에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가 솔단지와 프라이팬 더미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

는 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J. 헤셀의 말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명은 슬프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슬픈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쁜 마음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아는 훈련을 해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그리고 다시 세우리라!”는 것입니다.

46년의 건축기간을 지나 완공을 앞에 둔 ‘헤롯 성전’이 세워질 때 주님은 허물어져가는 성전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웅장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것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커다랗게 지어진 헤롯의 성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픈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름은 성전이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맥도널드가 쓴 [버티컬 쳐치]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 찬양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감싸고 있던 교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않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사람들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지어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기쁜가?” 사실 건축의 유무와 크기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인가가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힘을 들여 하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때 주님은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성전’은 종교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라’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봅니다.

“사역이란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다!”

만나교회의 외형이 커지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7절을 보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교란하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어떤 종교적 행위와 사명도 변질된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 할 때, 교회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고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이 커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줄어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다!!!!

만나교회의 MMP 사역은 이런 물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만나교회의 사역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만나교회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랴, 이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랴!

2014년에 나온 유기성 목사의 책 [우리 서로 사랑하자]에 나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로빈 마이어스가 지은 [언더그라운드 교회]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청빙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만장일치가 아니고 ‘사실상 만장일치’였습니다. 투표 결과가 243대 2였습니다. 목사님은 기분이 살짝 나빠졌습니다. 반대하는 두 사람이 있었단 말인데, 그렇다고 누구인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담정처럼 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두 사람이 누구인지 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두 분에게 아주 잘했습니다. 그 두 사람까지 내 사람으로 만들면 이제 모든 교인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재신임 투표 후 목사님은 그만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243대 2였습니다, 두 사람만 좋아하고 다른 분들은 다 목사님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참 웃지 못 할 일입니다. 목사에게도 교회도, 사람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 누군가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쓴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관하여 한국 교회의 상황을 심각하게 들여다볼까요?

70-80년대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전 우리 세대가 고생하며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아니라, 모여든 교인들과 부유해진 교회에서 물질을 누리는 목회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속된 말로 목사가 되면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었죠.

마치 중세시대에 성직자가 된다는 것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인 동시에 신분 상승을 의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헌신했던 사람들의 축복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축복을 바라보며 헌신을 흉내 내는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교회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성전이 장사하는 무리들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교회 건축으로 돈을 벌고, 교회 리모델링으로 돈을 벌고, 낙원상가의 악기와 음향 장사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먹여 살린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영상 장비들을 가지고 교회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목회와 예배, 교회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사를 위해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교회는 상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건축하면 누군가 떡고물을 얻어먹고 리베이트를 받는 비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장사치로 가득한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만나교회 MMP 사역은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며 만나교회가 몸부림치며 시작한 일입니다.

보편적인 현상이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는 어려운 교회에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교회를 돋고 살리는 것 역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려운 교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당연히 큰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큰 교회가 된 것은 작은 교회의 교인을 도적질 해갔다는 생각으로 큰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작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단지 크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으며 땃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서로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고, 그 교회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더 무섭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워졌던 교회들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변에 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새로 세워진 교회와 젊은 목회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은 ‘사명’이 아닌 ‘생존’의 문제 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 .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교회도 미국을 참 많이 닮아 갑니다.

2-30년 전 50개 이내에 있던 미국의 mega-church가 오늘 날 2000개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불편한 작은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골목 상권이 다 죽고 대형 마트들이 상권을 장악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기업의 횡포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취향과 편리함을 따라 찾아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교회 역시 자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들과 신앙과 삶의 전반을 다루는 사역들이 갖추어진 대형교회를 찾아 교인들이 너무 쉽게 자신들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과 “사명”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편리한가?”라는 기준에서 교회가 개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소비자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고 선교학을 공부한 저는, 교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목회계획을 세워나갔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자람이 없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런 교회들이 분당에 유독 많습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분당을 부러워하고 분당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당은 교인들의 천국이고 목회자들의 무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분당의 교회가 커지는 것만 보이지만, 분당의 많은 목회자들은 여기저기

교회를 쇼핑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향해 거침없이 떠나가는 사람들과 목회합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인해 작은 교회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아픔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의 가정과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척 아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픔을 알고 책임감을 가진다고 해도 만나교회 하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조금 규모가 크다는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믿음이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한 지체임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샷강이 마르면 큰 강이 마르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작은 종기 하나가 온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고 어려운 교회를 살피고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것인 동시에 만나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이 만나교회의 사역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하는 동역자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력과 재정의 부족으로 마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책임!

우리가 한국 교회 모두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픔을 같이 하고 책임을 같이 하는 ‘그 교회들’을 변화시켜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참 어려웠던 시절에는 많은 형제 중에 한 사람밖에는 공부를 시킬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의 희생으로 배움을 가졌던 그 사람은 그 가정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한 가문이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잘 나서가 아니라,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 일들이 생명을 낳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명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앨버트 슈바이처의 일화인데,

단 한 시간 안에 한 가지 문제를 풀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는 55분 동안을 옳은 질문을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옳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5분 안에 그 문제를 풀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한다면, 잘 못된 질문으로 시작하면 절대로 옳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명’도 동일한 것이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무엇이라 정의할 것이며, 사명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에서 관계로’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두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아버지와 관계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통제와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당신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니,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관점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최선이 나옵니다.

언젠가 헨리 나우웬의 책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가 공중 곡예를 하는 셔커스 단원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던 통찰이죠.

공중에서 학려하게 곡예를 펼치며 날아다니는 사람에게 모든 시선이 쏠려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묘기를 가능케 하는 것은 그를 안전하게 잡아주는 손이 있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곡예의 성공과 실패는 날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잡아주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헨리 나우웬은 그 곡예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순간, 종교적 공식과 통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제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곤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곡예를 부리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은 분노를 낳고, 분노하면 실수하고, 원망합니다. 사명자들이 어느 순간 피폐해지고, 때로는 중독에 빠지고, 타락하는 이유입니다. 사명의 관건은 어느 순간 의무로 전락한 사역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스카이 제서니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통제 요구의 정반대다. 믿음은 자진해서 통제를 내려놓는 것이다.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잡아 줄 분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니, 헨리 나우웬이 깨달았던 것이 더욱 진지하게 와 달습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자유롭게 모험을 하려면 잡아 주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추악할 때 안전하게 잡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위대한 주인공은 가장 보이지 않는 분이다. 잡아 주시는 분을 믿으라.”